

아파트 團地 造景

Fine View of Apartment Area

吳尚坪 / (주) 正東엔지니어링, 國土開發(造景)技術士
by Oh, Sang-Pyoeng



1. 폐쇄에서 개방으로

아파트단지는 計劃都市의 신개발 集團 共同住宅團地, 풍수해, 화재등으로 인한 재개발로 發生되는 아파트단지등 그것의 형성 동기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70%를 넘어선 구성비를 갖게되는 현 단계에서 불대 국민 住居生活 기여도는 실로 절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환경에 대한 人間의 기본적인 욕구는 다양하며 복잡한 것이어서 그 시대의 經濟的, 文化的, 社會的인 요구도에 따라서 항상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8.15광복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억눌림과 가난과 무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방황하던 산동내 판자집 시절과 보릿고개에 먹지를 못하여 부황이 들어 죽어가던 농촌생활의 참상은 불과 20~30년전의 우리생활이었다. 경제의 발전과 産業化는 2차대전 이후 세계적인 성장 물결이었으며 이에 낙오되지 않고 우리도 부지런히 노력하여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잘살게 되었다. 먹을것이 해결되고 입고 걸치는것이 해결되면 生活하고 쉴 수 있는 住居는 당연히 요구되는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생활하는 정도와 社會, 文化的의 요구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출된다.

그동안 경제적으로는 매우 발전이 되어 도시 서민 A.P.T 단지도 대부분 15평이상 20평내외가 평균이 되었으며 여유가 있는 중산층은 30~50평 규모의 住居生活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웠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환경이 상당히 향상된 상황이었으나 政治, 社會的으로는 매우 폐쇄된 상태에 놓여 있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기집, 자기가족, 자기개인만 너무 집착하여 공동의 소유, 참여의식등이 결여된 이기주의자들 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심리적인 환경하에서 A.P.T 단지의 공공을 위한 시설인 團地內 造景施設 역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중요인식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현관문 안의 순수한 個人을 위한 구역 안과 밖의 관심 정도는 매우 편이한 것이어서 우선 가옥 구조가 얼마나 호사스러운가 하는 것이 큰 관심이었다. 예컨대 최근에 신축중인 강동의 모 A.P.T는 주인이 외출중에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취사, 조명등의 점멸, 커튼의 조작등을 자유자재로 할수있게 전자 장치를한 Home Automation 덕분에 분양에서 30~40대 1의 높은 경쟁율을 나타냈다고 하였으며 그 인근에 건설되는 1개소의 공공이 시행하는 대단지에는 내부는 전자 장치등 호사스런 장치가 없고 대신 개인 영역을 벗어난 외부 즉 단지의 형태를 본다면 단지 면적에 비하여 고밀도화 시키지 않고 각양각층의 건물군이 다양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보도의 포장,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등은 월등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다되지 못하여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되었던 것이다.

아파트단지는 주거등 도로시설 오픈스페이스등의 각종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각요소의 성능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또는 각 요소마다의 시스템(그루핑 구성, 주거구 구성, 도로망, 오픈스페이스 시스템등)을 어떻게 상호 연관시키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단지의 구성이 달라지게 된다. 종래 아파트단지의 계획설계를 뒷받침해 온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대체로 다음과같이 다섯가지의 설계이론에 따라 구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理論的 背景

①日照理論 : 일조는 각 주거의 주거성에 직접적이고도 종합적인 관계를 지닌 요소로서 단지 설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이것은 太陽고도가 가장 낮은 동지를 기준으로하여 정오를 포함하여 4시간이상 일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층 높이의 스라브층에서는 10m, 5층의 주거동에서는 25m, 11층의 고층일 경우 55m 정도의 동간 거리가 필요하고 일조건 확보를 전제로 하여 얻어진 공간은 각 개별 주거에 프라이버시와 어린이놀이터 배치나

吳尚坪

필자는 41년 경남생으로 농학과와 한양대 환경과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는 정동엔지니어링 자영.

표준 일조 성능(표-1)

지역모델		등급		
		A	B	C
I	도시내 프름톱의 거점이 될 단지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II	도시내의 한적한 단지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III	근교의 시가지 형성에 질서를 주는 단지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IV	풍부한 프름톱에 쌓인 단지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V	교외 발전의 핵이 될 단지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식재 경관 구성을 위한 공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우리나라의 現行法으로서서는 충분히 규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성 시가지의 재개발이라든지 민간이 건설하는 A.P.T 등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일조권이 2~3시간으로 제한 받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제한받는 일조권만큼 주거공간이나 옥외공간의 성능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은 설명의 여지가 없다.

② 단계구성이론 : 사람의 生活행태에는 일정한 체계와 그것에 기인하는 유형이 있다. 공간이나 시설의 이용형태나 이용거리와 같이 간접적인 行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있다. 주택단지나 아파트단지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 단계구성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주거요소에 대해 그 체계 설정의 한 예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 주거동배치 → 주거 → 주거동 → 주거동군(그루우핑) → 주거 → 가구 → 주택지.
 - 도로배치 : 어프로치 → 보조도로 A(폭 4~5m) → 보조도로 B(폭 6m) → 간선도로(8m 이상)
 - 공원배치 : 놀이터 → 아동공원 → 근린공원 → 지구공원 → 종합공원 → 운동공원.
- 또한 주택에 필요한 각종시설(구매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공급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 성립의 배경이 되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의 구성요소 상호간의 조정을 도모하면서 단계적으로 주택지나 단지의 전체를 구성해가는 사고방식이 바로 단계구성의 理論으로서 일조이론과 함께 단지계획 설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계구성이론의 응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① 체계의 설정에 거리적 要素와 인구적 要素가 있다.
- ② 표준적인 밀도의 단지인 경우 거리적 要素와 인구적 要素의 체계가 대다수 일치한다.(예컨대 5층 정도의 주거동을

- 주체로 하는 용적율 60~80% 정도의 단지)
 - ③ 저밀도 단지의 경우는 거리적 요소에 의한 체계에 의해 시설이나 공간의 위치 규모 종류등이 결정되어야 한다.(예컨대 저층주택을 주체로 하는 용적율 20~40% 정도의 주택단지)
 - ④ 고밀도 단지의 경우는 利用人口의 요소에 중점을 두어 시설이나 공간등의 배치를 결정짓는다.(예 : 고층 주거동을 주체로 하는 용적율 120~200% 정도의 단지)
- 단계구성 이론은 다양한 생활 형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계획설계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고방식이기는 하나 실지 生活面에 있어서는 예를들어 주부들의 장보기나 어린이 놀이를 위한 움직임등 상정된 분위기를 벗어난 공간내지는 시설이 이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한 연후에 계획설계를 추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③ 보차도 분리이론 :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보차도와 그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두가지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첫번째는 평면적인 분리유형을 기초로 하는 계획사례이고 또하나의 도시기능의 추구를 근거로 한 교통시스템으로서의 입체적 분리를 기초로 한 계획사례이다. 아파트 단지의 설계에 있어서는 평면적 보차도 분리시스템을 기초로하는 유형이 채택되는 일이 많으나 평면적 분리수법, 입체적 분리수법, 시간적 분리수법 등을 복합적으로 상호 연관시켜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아파트 단지내에서의 동선공간에는 보행자의 동선 공간으로서 어프로치, 원로광장, 보도, 보행자도로, 녹도등이 있고 차량의 동선공간으로서 어프로치, 주차장 보조도로, 간선도로등이 있으며 자전거 도로는 양자의 중간적 위치에 놓인다. 이러한 각종 동선의 종류, 성격, 동선량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행자의 동선시스템과 차량의 동선 시스템을 설정함으로써 안전하고도 쾌적한 옥외생활공간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보차도 분리 이론의 기본적인 성격이다.
 - ④ 공간조형이론 : 주택 단지로서의 품격이나 풍요로움을 物理的으로

實現하고자 하는 경우 공간 조형에 의한 설계수법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공간조형으로 표현하고자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① 질서있는 공간 조형 → 연속성, 방향성, 통일감이 용이한 판단등
- ② 변화있는 공간 조형 → 리듬감, 스케일감, 개별성, 지역성등(이때 매우 중요시될 것은 혼란하지 않는 다양한 변화성이 요구된다) 주택과 상업업무시설이 혼재하는 기존 시가지는 변화는 있으나 혼란한 상태가 많고 질서가 결여되어 있으며 한쪽으로 동일한 외모와 크기를 가진 건축물의 주거단지에서는 질서는 있으나 변화가 결여된 인상을 받기 마련이다. 아파트 단지의 외부공간 구성에 있어서 목표가 되어야할 사항은 각 공간이 개성적이고 풍부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전체로는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주택지 경관을 창조하는데 있으며 그점에 공간조형이론의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 주거동 → 주거동의 높이, 주거동의 형식, 주거동의 디자인, 주거동의 배치.
- 시설 → 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시설의 디자인, 시설의 배치.
- 도로 → 로폭, 도로의 선형, 도로의 구배 도로의 패턴, 도로의 경관.
- 공원 → 공원의 종류, 공원의 규모, 공원의 배치, 공원의 디자인.
- 보행자도로 → 노폭, 보행자도로의 선형 패턴, 디자인, 또한 기온수립이나, 새로운 식재에 의해 구성되는 푸른 경관은 각구성 요소의 조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한편, 단지 전체로서의 개성과 차별한 느낌, 계절감등을 자아내는 중요한 조형요소의 구실을 한다.
- ⑤ 자연조형이론 : 단지내의 외부공간 구성에 깊은 관련성을 지닌 自然的인 부지 조건에는 아래와 같은 요소가 관여한다.
 - 地形的의 → 부지의 기복, 구배, 고저차
 - 植生的의 요소 → 기온수립의 식생분포
 - 景觀的의 요소 → 부지내외의 경관조망
 이러한 부지조건을 주거동 형식의 선택, 주거동의 배치, 도로의 배치 공원녹지의 배치등에 적극적으로 살려 조형적으로 보다 아름답고 합리적인 주택지 구성을

“ 아파트단지의 조경은 환경 계획적인 측면에서 주거의 거주성을 높여주는 한편 거주환경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고 경관 계획적 측면에서는 도시적 경관과(인공적 경관) 자연적 경관의 조화로써 이것이 함께 지니는 품격높은 주택지의 경관 환경을 창출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연조형이론의 사고방식으로서 단지의 조경계획이라는 관점으로 중요시되어야 하는 수법의 하나가 된다.

- 自然地形을 살려 주거지를 형성한다.
- 地形을 이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분리를 計劃한다.
- 自然地形의 특징을 주거동의 배치와 디자인에 살리도록 한다.
- 기존 樹林을 保存하여 푸른 랜드마크로 삼는다.

○ 부지밖은 景觀을 차경으로 받아들이는 등을 들 수 있다.

이상 위에서 열거한 다섯가지의 理論외에도

○ 각 住居의 居住性과 주거의 옥외 生活要素의 다양화에 유의하면서 주거동의 배치를 고려하는 - 주거주위 공간이론.

○ 주변지역을 포함한 단지 전체의 인간관계에 유의하면서 택지를 구성하는 - 커뮤니티 이론.

○ 주거구 구성이나 시설 배치에 있어서 集積의 장점을 살려 도시 구조적인 주택지 설계를 指向하는

수법 - 어버니티(Urbanity) 이론을 비롯하여 각종의 이론이 제시되어 구체화된 사례도 적지않다. 또한 하나의 團地가 하나의 設計理論만으로 계획 설계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못되며 두가지 이상의 설계이론을 모순됨이 없도록 상호

연관성하에 응용함으로써 보다 이상적인 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아파트 단지 옥외공간의 조경적 개념

아파트 단지의 공간적 특성중 하나를 든다면 옥외 生活공간의 공동소유 내지는 공동이용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전개되는 생활행위는 시간대와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고 단지의 역사와 구성될 입주민의 계층과 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공간이란 본래 利用하기에 따라 무한히 넓어질수도 있고 다양한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어떠한 특정 공간의 용도를 너무 한정적으로 성격지워 놓게되면 그 융통성이 결여되어 규모의 대소와 관계없이 매우 협소하고 쓸모 없는 것으로 되기 쉽다.

예컨대 주거 단지의 커뮤니티에 광장, 노천시장, 도로, 전시장, 운동장등을 겸할 수 있는 광장에 환경 조형 시설물과 분수를 곁들이고 녹음수를 식재한다면 그 공간이 갖는 다양한 수용성과 기능은 단지 면적의 대소에 상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團地造景設計에 있어서 주거동을 비롯한 각종시설, 도로, 녹지등의 구성요소를 구사하면서 일상생활에 대응할 수 있는 옥외공간의 구성은 공간이 지니고 있는 잠재 소질을 기능적이고도 시각적인 질을 높임으로서 쾌적한 住居환경을 창조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견지에서 본다면 아파트단지의 조경은 환경 계획적인 측면에서 주거의 거주성을 높여주는 한편 거주환경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고 경관 계획적 측면에서는 도시적 경관과(인공적 경관) 자연적 경관의 조화로써 이것이 함께 지니는 품격높은 주택지의 경관 환경을 창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레크레이션 계획적 측면에서 본다면 주민들의 일상적인 옥외 레크레이션에 대응하는 장소를 하나의 핵으로 해서 기능적이고 또한 쾌적한 생활공간 시스템을 구성한다. 아울러 커뮤니티 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이와같이 다양한 기능과 가능성을 가진 공간의 존재는 기존 시가지의 경색되고 웅색한, 제한된 상황에 비하여 기능이나 경관면에서 뛰어나게 됨으로서 團地 및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거주자 상호간의 광범위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간적 기반을 창조한다. 각 주택지의 형태는 自然 및 社會적인 立地조건과 사람들의 生活형태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생각되나 그와 반대로 주택지의 공간적 특성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형태를 규정하는 일도 있다. 그러한 뜻에서 주택 단지에 있어서의 옥외공간설계가 갖는 역할은 사람들의 생활을 받아 들이는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그 그릇을 만드는 수법여하에 따라서 그곳에 전개되는 행위가 단조로운 것이 되기도하고 인간성이 넘치는 다채로운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변화성있는 생활행위가 생활환경의 필요로움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면 생활환경의 설계 → 생활행위의 다양화 → 생활환경의 필요로움이라는 체계가 성립되고 여기에서

공동 사회의 造景 발상이 생기게 된다.

아파트 단지의 景觀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변화되어 간다. 그것은 파괴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시의 경관 변화 속도에 비교한다면 극히 완만한 것이어서 식재된 수목의 성장과 함께 지역 주변의 발전과 매우 잘 어울리는 조화를 이루면서 훌륭한 주거환경으로 성숙해 간다는 점에 있어서 안정감이 넘치는 것이 된다.

아파트 단지의 경관을 기본적으로 3가지로 구분지어 본다면,

○ 人工的 景觀 : 주거동, 각종 돌출된 시설물, 도로, 놀이터등의 인공적인 요소.

○ 自然的 景觀 : 지형, 토양, 물, 식생등의 自然的 요소

○ 生活景觀 : 일상生活, 옥외레크레이션, 근린시설등의 생활적 要素등이다.

이러한 각종의 要素들은 각기 독립된 존재가 될수 없으며 예컨대 주택지로서의 품격을 연상시킬수 있는 웅장하고도 푸른 가로수, 어린이들의 손때가 묻은 놀이터, 시설물, 낙서가 있는 담장, 비바람에 씻겨 나뭇결이 붉어진 벤취등 인공과, 웬스 들레에 흐드러지게 핀 개나리, 노인정 옆에 세워진 등나무, 우거진 퍼플러등 인공과 자연의 어울림, 교회의 첨탑, 도로의 아스팔트, 보도의 각양각색 포장무늬등등 人工과 自然的 景觀 및 生活의 景觀이 한데 어울어진 미묘하게 겹쳐지는 곳에서의 품기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그 풍요함이 더해지고 각가지의 행동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개성적인 생활 환경을 창조한다는 것이 아파트단지 造景設計의 가장 중요한 目標가 된다. 이러한 주제를 받아 들이기 위하여 조경공간의 디자인 수법을 여러각도로 추구해야 하나 기본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자연적인 환경조건인 지형을 비롯하여 식생, 토양, 水系등을 기본조건으로하여 규모가 큰 단지 경관을 구성해 나가는 조경수법, 안정성, 쾌적성, 합리성이 우수하고 내일의 도시 주택에 어울리는 품격높은 주거환경을 창조하는 都市景觀 조성수법, 풍요하고도 안정된 지역사회 조성을 지향하는 근린공간 디자인수법등 이상의 각 방법 가운데 어느 수법을 적용시킬 것인가하는 문제는 입시조건을 비롯한 각가지 설계 조건과 대응

“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向은 일조, 통풍소음 및, 조망등과 복합적 要求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검토하지 않고서는 결정지을 수 없으나 어느 수법으로 접근하던가간에 하나의 조경설계를 완성시키는데 있어서는 모든 수법을 복합적으로 구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아파트단지의 경관문제에 다소 첨가해서 부언을 한다면 단지계획 당시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조망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社會心理的 要求와 物理的인 結合體로서의 人間の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는 매우 다양한 것이다. 영역성 (Territoriality), 向과 眺望 (Orientation and View), 프라이버시 (Privacy), 독자성 (Identity), 편의성 (Convenience), 접근성 (Accessibility), 안정성 (Safety), 쾌적성 (Amenity), 사회참여성 (Social Contact), 이미지성 (Image) 등 수많은 因子가 있을 것이나 여기에서 論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경관적인 문제로서 眺望 (View)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기로 해본다. 眺望이라는 것은 向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向은 일조, 통풍소음 및, 조망등과 복합적 要求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日照上으로는 正面에서 약간 벗어난 南東向이나 南西向이 바람직하며 南西向은 오후의 최대 일광을 받게 좋고 南東向은 아침 햇살을 받아 좋은 向이다. 그래서 침실이나 부엌은 南東向이 이상적이다. 모든 세대의 住宅이 가장 이상적인 向으로 배치되었으면 최상이겠으나 아파트단지에서 모든방이 좋은 向으로 향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모든 住宅의 向이 완전한 단지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조망은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 및 적정 높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양호한 경관을 즐길수 있는 위치의 주택은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한의 즐거움을 가져다 줌으로서 인기가 있거나 잘팔릴 수도 있다. 주거의 구조에 따라 주변 경관의 이용은 유리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고 불리한 경우 차단시킬 수도 있다. 고로 단지계획가는 조망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항시 충분히 고려해야만 된다. ○ 모든 세대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극적인 경관이 있는가?

○ 모든 사람을 위해 保全 (Reserver)되며 주거군의 배치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초원, 호수, 삼림, 언덕, 강물이나 바다같은 특징적 경관을 갖는 곳인가? ○ 주택이 그 주위에 분산 배치될 수 있는 수풀, 露頭, 명쾌한 경관을 제공하는 골짜기 등과 같은 지역적 특성이 있는가? ○ 태양의 직사광선과 겨울바람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向은 어디인가? ○ 옹벽이나 급경사의 法面을 사용치않고 造景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각지역의 단면을 분석필요와 뒷세대의 視野를 가리지 않는 인동간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정확한 경사도를 파악해야 한다. 경관 및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眺望의 計劃에 있어서는 平地일 경우 부지의 가장자리를 따라 주택을 배치시켜 각방향의 시야를 차단시킴이 없이 주변경관을 이용함이 좋을 것이고 극적인 경관에는 크고 짜임새있는 주택을 지어 모든 세대의 전망을 좋게 해야하며 골짜기를 내려다 보는 경치가 골짜기로부터 올라다보는 것보다 낫다. 개활적 경관에는 보다높은 지역에 큰 건물을 짓고 저층부의 주택들은 테라스하우스(로단식 주택)을 짓는것이 유리하다. 자생적으로 기존되어 있는 수목군 거수목, 아름다운 바위등 자연적인 매력들은 소규모 주거군을 위한 촛침적역할을 한다. V字形 또는 U字形 전정은 한쪽방향으로 탁트인 조망을 제공하며 테라스형주택은 여러세대의 양호한 전망을 제공한다.

4. 아파트 단지의 조경계획

① 경관요소로서의 주거동 住居棟은 아파트단지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건물로서 단지 경관의 주 구성 요소가 된다. 옥외 공간의 구성요소로서 주거동을 보는 경우, 높이 형상, 主開口部의 方位, 주거동의 축선방식, 주거설계가 중요한 인자가 된다. 주거동과 옥외공간의 대응관계를 분류하면 크게 나누어 네가지로 구분된다. ○ 높이에 의한 분류 - 저층주거동, 중층주거동, 고층주거동 ○ 형상에 의한 분류 - 板狀주거동, 塔狀주거동, 복합주거동

○ 축 방향에 의한 분류 - 東西축 주거동, 南西축 주거동, 중간방위 주거동. ○ 주 개구부 방위에 의한 분류 - 남쪽에서 접근하는 주거동, 동서측면 접근 주거동, 북측 접근 주거동 등 위와같은 분류된 각 주거동의 형식에 따라 단지내에 구성되는 외부공간의 형태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데 단지내의 造景의 실제 계획이 상응하게 달라질 수 밖에 없게 된다. ② 저층주거동일 경우 1~2층의 주거동으로서 높이는 6m 정도가 된다. 주거동은 소형으로서 지형의 고저와 변화등에 쉽게 적응하며 각종시설과도 균형이 잘 유지된다. 높은 밀도의 거주형태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건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거동 사이 및 주거동과 옥외공간 사이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확보가 중요시되며 놀이터 녹지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특별한 설계상의 창의가 필요하다. ③ 중층주거동일 경우 3~5층 정도의 주거동으로서 높이는 14m 정도가 되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한계높이가 된다. 주거동 주변에 식재되는 교목의 높이와 거의 비슷하며 옥외의 각 시설물과의 균형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고밀도의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하므로 집합주택 즉 아파트단지의 표준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④ 고층주거동일 경우 8~15층 정도의 주거동으로서 높이는 43m 정도까지이다. 건물의 높이와 폭이 모두 대형으로서 옥외의 각종시설과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랜드마크나 동선의 유도등 원거리로부터의 시점에 대해 유효하다. 고밀도의 주거형태에 잘 적응될 수 있으나 종일토록 그늘지는 범위가 크고 전과장해, 풍해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활동, 낙하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조경계획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된다. ⑤ 판장 주거동 단위 주거에 대해 균등한 조건을 부여하기는 쉬우나 옥외에 대한 대응도에 따라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연속되는 꾸밈새를 갖고있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범위가 넓고 영구적인 그늘을 만들기 쉽다.

“ 단지 속의 옥외공간은 주택의 정원을 집약하여 단위주거 + 공용 또는 공공 공간이라는 구조로 바뀌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그에 반하여 공간을 분할하거나 영구적인 폐쇄공간을 만들어 내는데는 어울린다. 지형이나 고저의 변화 또는 기존수림의 보전등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⑥ 답상주거동

각 단위 주거동에 균등한 조건을 부여하기 쉬우나 변화성이 큰 경관을 만들어 내기 쉽다. 독립동으로서 시야를 가리는 범위가 비교적 적으며 영구적인 그늘이 조성되는 비율 또한 적다. 랜드마크적 기능을 갖는 외에 해방적인 공간을 조성하는데 어울린다. 지형과 고저의 변화 및 기존수림대의 보호등에 대해 비교적 적응성이 쉽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⑦ 동서측 주거동

主開口部가 南北을 향한 주거동으로서 고밀도 住居形態를 취할 때 옥외공간에 대한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단위주거에 대한 일조조건은 가장 좋아 일반적으로 흔히 채택되고 있는 주거동이라고 할 수 있다.

⑧ 남북측 주거동

主開口部가 東西로 향하는 주거동이다. 밀도높은 住居形態에도 비교적 옥외공간에 대한 일조조건은 양호한 편이다. 단위주거에 대한 일조조건이 동서측 주거동에 비해 불량함으로 특수한 경우에만 채택된다.

⑨ 남쪽에서 접근하는 주거동

보행자도로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옥외공간의 연결성이 양호하다. 그러나 주가 되는 침실이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확보와 낙하물에 대한 위험성의 방지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⑩ 북쪽에서 접근하는 주거동

동서측 주거동에서 가장 보편적인 접근 방법을 갖는 주거동이다. 보행자 도로가棟의 북측에 위치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나 낙하물에 대한 배려는 비교적 안심되는 형이지만, 출입구가 북측에 위치하여 항상 영구적인 그늘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어서 조격적인 측면에서 배려는 매우 어려운 경우이다.

⑪ 동서측면에서 접근하는 주거동

주개구부에 대해 평행하는 방향으로부터 접근하는 주거형으로서 프라이버시등에 대해서는 유리하고 옥외공간의 연결성도 좋으며 풍부한, 변화성있는 경관을 쉽게

조성할 수 있다.

5. 전용 정원

단지 속의 옥외공간은 주택의 정원을 집약하여 단위주거+공용 또는 공공 공간이라는 구조로 바뀌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個人的인 옥외공간이란 발코니나 베란다와 같은 소규모의 건축적 공간 밖에는 확보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쾌적한 공간의 소유는 불가능한 곳이다.

따라서 전용정원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휴식을 위한 자리인 동시에 생활을 위한 자리이고 수납을 위한 자리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채택된 것이다. 규모는 15~30m² 정도로서 일조와 통풍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여기에 부가되는 장치로서 경계담, 산울타리, 옥외창고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같은 전용정원은 1~2층 정도의 저층주거동에 부설되며 접지하지 않는 주거에 대해서는 인공적인 테라스를 설치하는 등의 창의에 의해 접지형 주거에 해당하는 속칭 빌라등의 주거형에 알맞는 형식이다.

6. 공용 정원

일조, 통풍, 방진, 보온, 프라이버시의 확보등을 위해 각동 사이에 설치되는 단지 특유의 정원이다.

휴식을 위한 자리를 구성하는 감상적인 정적공간으로 설계되는 경우와 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활동적인 근린 공간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있다. 중층 단지의 경우에는 100~200호 단위의 주거에 대응하고, 저층 단위 단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10~30호의 크러스터에 대응하는 규모가 되는 경우가 많다.

7. 분수원 정용화단

전용정원이 가지는 기능 가운데서 특히 조화 등 식물을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한 시설이다.

週團位 레크레이션시설이기 때문에 유치거리나 위치 등에 따르는 제약은 없다. 작업도구와 수납시설을 비롯하여 관개시설,

휴식시설을 병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구획의 크기는 4.5m² 정도를 표준으로 하나 이용 상태에 대응하여 규모를 바꾸거나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지 면적보다는 총 면적 규모를 어느정도라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식재시설이기는 하나 수경적 요소가 극히 적기 때문에 주위를 산울타리 등으로 가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실사가 극히 미약하나 독일에서는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 시설로서 특정한 주거지역이 아닌곳, 예를 들면, 도시역전, 도심지 녹지대, 일반 공원, 주택지 등 그 분포는 일반 도시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지의 土地利用上 여분의 토지확보가 어려운 형편으로 실행에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아파트단지의 計劃段階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 봄직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8. 주거계획 :

아파트 단지의 조정 계획상, 녹지계획이란 단지내부에 植物을 美的 기능적, 생태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창출코자하는 植物利用計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식물은 造景家가 하나의 경관을 꾸며내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 가운데서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으로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기 위하여는 거주자의 요구와 단지의 입지조건을 먼저 파악하고 이러한 조건에 합당한 우수한 소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식생의 아름다움은 복잡과 다수, 성장등에 따르는 변화에서 발생되는 미적 증가와, 견고한 생김새와 균형잡힌 量감, Mass 를 다루는 것은 건축가의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녹지대의 배식설계는 계획가의 경험이나 능력에 따라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美的인 경관환경의 조성이 좌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植物은 土壤에 뿌리를 박아 살아 나가야 하는 기본적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내의 綠地土壤의 質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알맞은 토양의 준비 또한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고, 樹木은 생명력을 가진 것이므로 식재인 사후 관리

“ 아파트단지내에서의 수목은 푸르름을 제공하여 단지내의 경관을 정비하는 주역으로서 겹쳐진 아파트건물의 수평적인 스카이라인을 끊어주어 단조로운 경관에 큰변화를 부여하며 과다히 노출되어 인간적인 스케일을 크게 벗어난 콘크리트의 벽면을 덮어 줌으로써 ”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9. 配柱의 기능

수목을 비롯한 모든 식물은 인간이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과 심지어는 장소에 따라서도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용방법에 따라 수목이 발휘할 수 있는 각종기능을 간추려 보면 건축적인 기능, 공학적인 기능, 기상학적인 기능 및 미적기능 등의 세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건축적기능으로서는 사생활의 보호적 기능(Privacy Control) 과 차단, 은폐(Screening)의 기능이 있는데 사생활의 보호와 차단·은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차단 은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관을 가리워주는 구실을 하나 경관으로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사생활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어느 특정한 지역을 단지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고립시키는 수법이다. 다시 말해서 수목을 밀집상태로 식재하여 사람의 침입을 막도록 한다는 것이 차단이나 은폐와 다른 점이다. 또한 건축적 기능으로서 공간의 分割(Space Anticulation), 점진적인 공간의 이해(Pregressive Realigation) 등을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의 분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배식에 따라 공간이 분할되는 것이다. 울타리의 안쪽과 바깥쪽 화단의 경계와 보호등의 구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점진적인 공간이해라는 것은 단지내 식재군을 형성하여 건축물과 상호연계시킴으로써 단지의 내부가 외부로부터 직선적인 노출을 방지하고 점진적으로 동선을 유도함으로써 단지내부의 깊이와 유연성을 유지시키고 주거환경의 안정감을 유지시킨다.

다음 공학적 기능으로서는(Engineering Function) 주어진 환경속에서 그 환경이 지니고 있는 공학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물의 기능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토양보호 → 토양의 침식조절(식물의 根系의 物理的인 作用)(Soil Erosion Control) 토양 습도조절.
- 소음방지의 기능(Acoustical Control) → 소음방지의 기능으로서 수목의

枝葉으로부터 음향의 차단과 흡수반사적 기능.

- 대기정화작용 (Atmospheric Purification) → 수목의 枝葉에 의한 분진의 흡착과 여과작용 및 탄소동화작용으로서 공기의 정화, 산소의 공급과 유해가스의 흡수효과, 꽃과 잎에 의한 향기의 제공, 공기습도조절.
- 광선반사 및 섬광조절기능 (Reflection Control and Glare Reduction) → 직사광선의 차단효과, 반사광 및 섬광의 차단, 저층세대의 자동차 헤드라이트 방지 등의 기능을 갖는다. 또한 기상학적 및 미적 기능으로서는
- 태양복사열 조절작용 (Solar Radiation Control)
- 풍랑조절작용 (Wind Control)
- 강우조절작용 (Precipitation Control)
- 美의기능으로서 (Esthetic Function)
- 樹木의 조각물적 利用 (Sculpture Uses)
- 植物의 影像的 利用 (Silhouette)
- 樹木의 線形美 및 장식적인 수벽
- 樹木의 自然的 美 → 식물의 美中에 제일 으뜸이 되는 美는 역시 自然美일 것이다. 녹음, 새싹, 꽃, 열매, 수간, 가지, 겨울눈 속의 수목 등등

10. 아파트 단지내의 수목

人間의 生活環境 속에서 푸르름이 지닌 作用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설명의 여지가 없다. 아파트단지내에서의 수목은 푸르름을 제공하여 단지내의 경관을 정비하는 주역으로서 겹쳐진 아파트건물의 수평적인 스카이라인을 끊어주어 단조로운 경관에 큰변화를 부여하며 과다히 노출되어 인간적인 스케일을 크게 벗어난 콘크리트의 벽면을 덮어 줌으로써 압박감이나 소외감을 완화시켜주고 또한 주거동 사이를 가득 메워 줌으로써 외부공간에 차분한 분위기를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외부공간의 국부적인 경관 또는 수목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크며 또한 수목은 스스로가 차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봄의 싹과 여름의 녹음, 꽃과 열매, 가을단풍, 겨울하늘에 펼쳐진 섬세한 가지의 아름다움,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생김새를 전개하여

거주자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생물인 수목은 숲을 이룸으로서 새와 벌, 나비등 많은 생물을 불러들여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여 인간의 생활에 생동감을 불러일으켜 준다. 물론 그러한 생기감도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새들이 즐겨먹는 열매나 벌레가 모여드는 꽃이나 수액을 가진 나무를 곁들여 심어 놓아야 하고 농약의 사용에도 신중을 기하여야만 된다. 식물의 올바른 생장 생육을 계속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흙의 공급이 필요하며 특히 소홀히 취급하는 토양은 아파트 건축공사 쓰레기 등의 매립으로 매우 나쁜 상태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대지조성단계에서 노출되는 암반이나 쇄석공사중에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 목재조각, 심지어는 도배 휴지조각, 비닐, 유리조각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이물질이 토양 속에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파트단지의 토양이다. 자연은 자체정화능력을 갖고 있다. 토양 역시 자연이므로 여기에 全단지의 토양을 전부 바꾸어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부식질의 영양이 풍부한 신선한 부식토양을 충분히 공급하여 수목의 초기 생육을 조장시켜야 하고 성장에 양호한 조건을 인간이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11. 配植의 方法

一端的으로 造景配植의 方法으로서는 整形形式 配植 (Formal Type Planting) 과 非整形形式 配植 (Informal Type Planting) 이 있다. 配植手法은 땅가르기 (Zoning) 방법에 밀접한 띠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되며 整形形式 手法은 건축물의 대칭형과 관련지어 축선 (Axis) 과 평행 또는 직교하는 선에서 직선적으로 구획지어진 정원에 어울리는 형태로서 건축물과 정원이 직선적 관계에 존재하므로, 일명 건축식이라고도 하며 평면기하학적 외모를 갖기 때문에 기하학적 (Geometrical Type) 정원이라고도 불리워진다. 따라서 배식에 있어서도 직선적인 꾸밈새와 어울리도록 원추형으로 다듬어지거나 원주형 또는 球形으로 다듬어진 같은 크기와 형태의 동일수종이 園路에 따라 직선을 이루며 동일간격에 반복적으로 심어지게 하는

것으로서 한구획의 중심선과 같은 강하게 視線을 끄는 자리에 실시되어진다. 이에 대하여 非整形式 配植은 정원내에 自然의 風景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뜻하는데 18세기 영국에서 발생한 自然風景식 수법과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 온 전통적인 수법이 모두 비정형식 배식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기서 참고로 집어두는 것은 단순히 風景이라 하면 自然風景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風景식이라는 명칭대신 自然식이라는 명칭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風景식의 경우 땅가르기 자체가 자연적인 곡선을 이루며 원로 또한 이에 따라 완만한 곡선을 그려가도록 배치된다. 따라서 배식 또한 자연 그대로의 숲이나 산기슭의 관목군락이 풍기는 운치와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배치상태로 구성된다. 최근에 와서는 특히 아파트단지에서는 직선적인 땅가름에 따라 구성된 정원일지라도 風景식에서 구사되는 배식수법이 실시되어 정형식과의 절충식인 (Compound Styleol) 것이 상당히 실용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파트단지의 공간은 규칙적으로 단지의 용도와 이용계획에 따라 구성되어지므로 도로등 땅가름의 골격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 직선형이 채택되며 주거지로서의 아늑함을 요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연의 포근함도 역시 동시에 필요로 하게 되어 있다. 이와같은 상반된 요구와 필요조건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정형과 비정형식의 절충식이 적절히 구사됨으로써 정형식이 갖는 기능면도 충족되어야 하고 아늑한 보금자리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포근한 자연식 수법도 가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주거동이 평행해서 배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棟사이에는 차랑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게 있어 거주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녹지대 내에는 각종 시설물이 돌출되어 있어 이것을 가리워야 하는 문제등 차폐 식재를 요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다. 그런데 차폐의 대상은 어떠한 장소에서 바라보아도 완벽하게 가리워지는 차폐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에서는 고층에서 지상을 바라보게 되므로 고층에서의 시각적 차폐의 개념은 보행자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차폐용으로 흔히 사용되는 수종으로서는 가이스카 향나무, 미국측백, 편백, 화백, 재래종 한국향나무 등이 침엽수종으로서 주로 쓰이며 가시나무류, 감탕나무, 녹나무, 구실갓바나무, 아왜나무, 후박나무, 후피향나무 등 상록 교목류는 우리나라의 남부해안지방에 잘 적응하는 수종이며 팡나무, 금목서, 돈나무, 사찰나무, 식나무 유엽도등은 상록 관목으로서 역시 남부지방에서 사용되는 수종이고, 중부이북 지방에서는 일부침엽수종의외에 낙엽 교목류로서 느티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서어나무, 미류나무, 산딸나무 등이 쓰일 수도 있고 낙엽관목으로서 쥐똥나무, 개나리, 말발도리, 명자나무, 조팝나무, 무궁화 등이 쓰이며 만경류로서 등나무, 남오미자, 담장이덩쿨, 인동덩쿨, 칙 등이 쓰인다. 또한 기능을 위주로 하여 쓰이는 녹음수(그늘나무)로서는 가중나무, 느티나무, 당굴피나무, 중국단풍나무, 백합나무, 은행나무, 프라타나스, 팽나무, 피나무, 회화나무 등을 들 수 있고 방음식재용으로서 편백, 비자나무, 가이스카향나무, 감탕나무, 녹나무, 담팔수, 소귀나무, 아왜나무, 태산목, 팡나무, 개동청목, 사쓰끼철쭉, 왕쉬똥나무, 개나리, 딱총나무, 매자나무, 산사나무, 가막살나무 등이고, 방풍식재용으로서 독일가문비, 리기다 소나무, 삼나무, 가이스카향나무, 향나무, 잣나무, 편백, 화백, 창포, 잔디, 양잔디, 클로우버, 알과과 등이 있다. 그의 단지내의 식재와 관련하여 서술하고자 한다면 요소와 분야에 따라 한없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나 생략키로 한다.

12. 어린이 놀이터 시설

어린이는 人間성장단계이 있어서

발육기로서 자연환경의 혜택과 부모의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이시기는 일생에 있어서 인구형상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발달심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 人間과 環境의 상호관계에서 發生하는 행동은 어린이 성장단계에서 독특한 양식을 나타내는데 각 시기에 어린이가 획득하여야 할 행동양식을 발달과업 (Developmental Task) 이라하여 이들을 획득하지 못하면 다음시기의 행동발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있다. 어린이놀이는 놀이라는 행동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한 행동으로 심리학에서 논의되는 어린이의 욕구는 일반적으로

- 배고픔, 목마름 등을 만족시키려는 욕구
- 외부에 대한 신체적 보호를 구하는 욕구
- 성적 욕구
- 활동 및 휴식을 구하는 욕구
- 배설등 생리적 욕구
- 사회적 인지를 구하는 욕구
- 새로운 경험을 구하는 욕구

등의 욕구는 심리적 불균형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동을 요구하게 된다.

어린이의 행동은 환경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데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의 유형화를 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으로 신체의 발달을 구하는 신체적 행동.
- 환경의 자극에 대한 내부적 반응이 감정적 의식을 수반하여 외부로 나타나는 정서적 행동.
- 사회적 환경에 적응키위하여 그 社會의 文化傳統, 가치관을 습득하는 社會的 行動.

○ 지각과 지식이 발달하고 사물에 대한 관념이 명확해지면서 환경을 변화 시키려는



行動이 커가는데서 이같은 事物을 재구성하려는 창조적 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어린이 놀이의 의미는 무엇이든 하고싶은 행동을 하고싶은 시간에 한다는데 있는 것으로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적 욕구를 표현한다.

어린이의 놀이는 어린이의 모든 행동을 수용하며 모든 행동은 놀이라는 行態를 통해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간에 대한 어린이의 행동요구는 어린이의 욕구가 環境-物理的, 社會的 環境-에 의해 영향을 받아 놀이라는 행동양식으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어린이놀이터 計劃設計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어린이의 놀이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 발달을 위해 계획되고 의도된 환경이 요구되는 것이다.

어린이놀이터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면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도심지의 공간확보등의 영향을 받아 충족되는 못하지만 여러가지의 형태로 유형화되어 나타났다.

○ 전통 놀이터 : 과거로부터 전통적으로 설치되어 오던 유형으로서 놀이터부지 전체가 어린이의 신체발달을 위한 그네,

미끄럼대, 시소, 철봉 등의 놀이기구로 구성되는데 一名 기구놀이터라고도 불리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유형의 놀이터는 그것이 갖는 재료의 단순성과 놀이기구와 시설의 고정성, 경직성으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이곳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관찰해 보면 놀이기구의 단순성으로 쉽게 실증을 느끼고 그시설위에 그들 나름의 독창적인 놀이행태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모험 놀이터 : 1943년 덴마크의 쏘렌슨 교수는 어린이들이 그를 위해 만들어준 놀이터보다도 폐품이 쌓인 곳이나 폐공장, 폐차장등에서 놀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관찰하고 여기에 착안하여 코펜하겐의 교외 신흥주택지에 폐품을 利用한 어린이놀이터를 개설하고 숙련된 놀이지도자를 상주시켰다. 그결과 어린이들은 곧 익숙해져 건축자재와 부품을 쌓고 허물고 하면서 끊임없는 새로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갔다. 반면에 어른들은 복잡하고 위험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쉽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으나 재래의 전통놀이터에 비하여 계속적으로 어린이들이 흥미를 갖고 놀이를 계속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으면 파괴적인 놀이행태를 취할 요소가 없으므로 더욱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영국, 미국, 유럽대륙 캐나다로 번져 이제는 범세계적으로 권장되는 어린이놀이터형태가 되었다. 그외에 창조놀이터, 가로놀이터, 교통놀이터등 여러가지 유형의 놀이터가 성향하고 있다.

13. 그의 시설물

그의시설물로서는 파고라, 벤치, 휴지통, 각종안내판, 환경조형 시설물, 가로수보호블럭 등의 간단한 시설과 자전거 보관대, 분수대 시설등이 있을 것이다.

《계속》